

‘잘한다 잘한다’ 연변팀, 기어코 홈 7连胜 달성!

- 서계조의 결승골 연변팀의 신기록 이끌어

‘홈 7连胜’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댄 선수들이 압력을 동력으로 살렸다.

강팀과의 대결에서 또 한번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친 연변팀은 홈 7连胜이라는 장거와 함께 승점 3점을 차곡차곡 쌓아올렸다.

6월 29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5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4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남통지운팀(이하 ‘남통팀’)을 1대0으로 제압하며 1만 5,000여명이 모인 홈장을 들끓게 했다.

홈 7连胜이 접쳐지는 이날 경기에 이기형 감독은 4-4-2 전형을 가동했다. 호재겸, 서계조, 왕봉, 리세린으로 수비선을 구축하고 리룡, 도밍구스, 박세호, 김태연이 중원에 포진되었으며 황진비와 포부스가 투톱으로 최전방에 나섰다. 키퍼 장갑은 구가호가 졌다.

경고 부적으로 지난 경기를 결장한 황진비가 다시 선발로 나선 가운데 얼마전 영입을 공식 발표한 중국 항행적 선수 누네스와 왕자호도 대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눈길을 끌었다.

한편 연변팀과는 2점 차이로 두 순위 낮은 7위에 머물러있는 남통팀은 일본적 감독 시노다 요시노가 선호하는 4-2-3-1 전형을 들고 나왔다.

리그에서 막강마하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 두 팀은 시작부터 탐색전 없이 경기에 돌입했다. 휘슬이 울리고 1분도 안되어 김태연이 슈팅을 시도하며 기선 제압에 시동을 건 가운데 남통팀도 몰려서지 않으며 강하게 맞섰다.

초반부터 불꽃이 튀던 경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더불어 연변팀은 측면 공간을 리용한 전진 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원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며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두 팀의 ‘눈치싸움’이 가열되면서 초반 30분까지 두 팀의 슈팅 차수는 각각 1회 밖에 안되었다.

상대적으로 잔잔했던 전반전은 추가 시간이 4분 주어졌고 그사이 남통팀이 페널티 부근에서 프리킥을 얻으며 긴장감을 조성했으나 우리 팀의 수비벽에 막히며 무산되었다.

전반전에 연변팀은 슈팅 1회에 유효 슈팅을 만들지 못했고 남통팀은 슈팅 4회에 유효 슈팅은 1회였다.

후반전을 시작하며 연변팀은 허문공으로 리세린을 교체 투입했다.

연변팀은 랑 측면을 살려 상대의 뒤공간을 노려보았지만 문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후반 53분경 연변팀은 경기전부터 기대를 모았



▲ 결승골로 승리를 이끈 서계조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던 ‘신인’ 누네스를 출전시키며 부상을 호소한 호재겸을 교체했다.

57분경 짧고 빠른 패스를 통해 상대의 문전까지 밀고 들어간 연변팀은 마지막에 도밍구스가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빗나갔다.

그러나 아쉬움도 잠시, 팽팽하던 균형이 깨진 건 경기 60분경에 얻은 프리킥이 그 시작이 되었다. 도밍구스가 높이 띄운 크로스가 자로 켜듯 완성도가 높았다면 문전에 귀신같이 침투해있던 서계조의 위치 선정도 그야말로 탁월했다. 서계조의 헤딩 킥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이렇듯 모든 박자가 고루 맞아떨어지면서 연변팀은 드디어 선제골을 폭발시키며 1대0으로 앞서갔다. 이와 함께 연변팀은 여유를 찾았고 반면 상대팀 선수들은 거친 플레이를 보였는가 하면 장외에서는 화를 주체 못하는 감독진까지 더해 조급 정서가 선명하게 일었다.

이에 맞서 연변팀은 78분경 또 한번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태연과 박세호를 빼고 천창걸과 왕자호를 투입했다.

왕자호까지 뛰게 출전하며 연변팀은 일

전에 차례로 영입을 발표한 두명의 신인을 모두 선보였다.

경기가 막판에 내달리며 굳히기에 들어간 연변팀은 수비방을 촘촘히 치는 한편 역습을 노렸다. 남통팀의 공세가 숨막히게 펼쳐졌지만 연변팀의 수비벽을 뚫고 문전까지 도달할 만한 공격은 나오지 못했다.

87분에 연변팀은 도밍구스를 빼고 리강을 교체하며 부단히 전술을 조정했다.

추가 시간이 8분 주어지면서 긴장감을 최고조에 달했다. 공격과 역습이 얹치러워지락 이어지면서 추가골을 향한 연변팀과 동점골을 엿보는 남통팀의 접전이 치열했지만 연변팀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1대0 승리를 지켜냈다.

기록적인 홈 7连胜으로 승전고를 울린 연변팀은 7월 5일 남경도시팀과 원정에서 격돌한다.

더욱이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주 주말에 남경도시팀과 원정경기를 치르고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연변팀은 7월 12일, 7월 19일, 7월 26일, 8월 2일까지 연속 4경기를 홈에서 대결한다는 것이다.

승승장구중인 연변팀이지만 아직 원정승이 없다 보니 다음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일 지에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홈에서 필 필 날고 있는 연변팀이 돌아오는 4연속 홈경기를 또 어떻게 화려하게 장식할지에도 눈과 귀가 쏠린다. / 김가혜 김파 기자

경기후

폴 넣는 수비수 서계조
“승리만이 우리의 최고 목표”



대남통지운전 경기를 마친 뒤 공동취재구역에서 이날 결승골을 터뜨리며 포효한 연변팀의 수비수 서계조가 취재를 받았다.

“경기의 전반전에 다소 대치 국면이 펼쳐졌는데 중간 휴식시간에 감독님이 전술에 대해 어떠한 조정을 했는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서계조는 “우리의 홈이기 때문에 우리도 연승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홈장의 명예를 사수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감독님의 많은 포치가 있었는데 최종 목표는 경기를 이기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의 최고 목표였다.”며 7连胜을 향한 간절함도 내비쳤다. / 김가혜기자

감독초대석

이기형 감독
“굉장히 어려운 홈 7连胜, 선수들 한마음 덕분”



6월 29일 오후, 연변룡정커시안팀을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열린 갑급리그 제 14라운드 경기에서 남통지운팀을 1대0으로 이기면서 홈 7连胜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경기후 있는 기자회견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 이기형 감독은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던 터라 이번 경기를 위해 준비했던 압박이나 공격들을 잘 리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더운 날씨에도 선수들이 끝까지 밀고나가면서 승리한 데 대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기형 감독은 “홈 7连胜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선수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 경기에 임하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 다시 한번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감독은 “오늘도 홈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한목소리로 응원해주었기에 선수들에게 힘이지만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팬들이 홈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축구팬들의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했다. / 김파기자

아시아 최고 수준의 무술대회 송원서 열린다

지난 28일 오후 길림성인민정부 정보판공실에서 소집한 제 1회 무술 체계적 동작(武术套路) 아시아안팎 및 제 2회 무술킵복싱(武术散打) 아시아안팎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이 두 국제대회가 7월 5일부터 6일까지 길림성 송원시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중국무술협회, 길림성체육국, 송원시정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두 대회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무술대회이며 또 아시아 최정상 무술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뽐내는 최상급 무대이기도 하다.

제 1회 무술 체계적 동작 아시아안팎은 남자 종목 11개, 여자 종목 11개, 혼합복식 종목 1개 등 도합 23개 경기 종목으로 편성되었으며 105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아시아 16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이 선수들은 모두 제 10회 아시아무술선수권대회 무술 체계적 동작 각 종목별 8위 안에 든 우수한 선수들이다.

제 2회 무술킵복싱 아시아안팎은 남자 체급 11개와 여자 체급 7개를 설정했다. 14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66명 선수가 참가하는데 그들 역시 모두 제 10회 아시아무술선수권대회 무술킵복싱 각 체급별 3위 안에 든 우수한 선수들이다.

료해 따르면 무술 체계적 동작과 킵복싱 두 종목의 아시아안팎 경기가 같은 시간, 같은

경기장에서 동시에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무술애호가들에게 ‘격투기의 힘과 태극의 운률’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시각적 성연을 선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 두 대회는 ‘세계안목, 국제표준, 중국특색, 높은 기준’의 원칙에 따라 아시아 무술 발전의 구도에 기반하고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의 개최 리념을 기준으로 삼아 최상위 설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경기 + 훈련 + 문화’를 삼위일체로 한 개최 방식으로 무술 문화의 핵심과 시대정신을 깊이 융합하고 경기의 시각 설계에 중국어의 전통 요소를 담아 개막식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대회와 훈련을 뉴대로 하여 아시아 각 나라와 지역간의 문화 상호 교류를 추동하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무술대회, 재판과 코치에 대한 강습 및 문화교류를 일체화한 최고 수준의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술 아시아안팎은 스포츠 축제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명 교류와 상호 학습의 교량이다. 대회는 무술을 매개로 하여 무술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경기를 통해 도시를 발전시키며 경기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길림성 도시의 대회 운영 수준과 문화적 자신감을 충분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주동기자

포토 포커스

‘7连胜 신기록’... 선수들은 신나고 팬들은 즐겁다



‘홈 7连胜’이라는 장거와 함께 팀의 신기록을 갱신한 이기형 감독과 선수들이 경기후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이로써 연변팀은 올 시즌 반점전을 앞두고 홈경기에서는 무조건 승전고를 울리는 기꺼운 성적을 거두었다. 순위도 단숨에 5위로 경종 올랐다. 4위를 차지한 석가장공부와는 똑같은 승점 24점이

지만 폴 득실차로 밀려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날 경기를 통해 최근 영입한 신인 누네스와 왕자호까지 차례로 첫선을 보이면서 중후반의 전력을 단단하게 보강한 연변팀은 리그 후반전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 글 김가혜기자 / 사진 김파기자